N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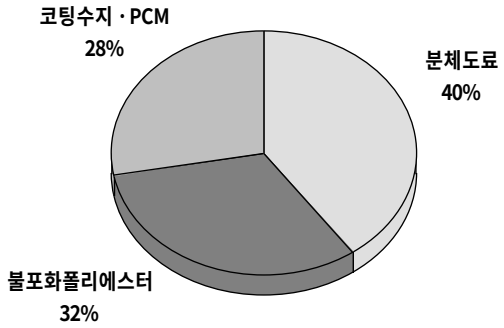
OXO-CHEM의 최종유도체로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 NPG(Neopentylglycol)시장이 합성수지산업의 호황을 바탕으로 10%이상의 안정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94년말 이후 용제 및 수지첨가제 시장의 급속한 신장세가 이어지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등 가격면에서 정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NPG 수요는 연간 20여만톤으로 이 가운데 Eastman과 BASF가 각각 25%의 점유율을 보이며 전체시장의 절반을 넘게 장악하고 있으며 훽스트, Perstop, 미쯔비시가스화학이 나머지 절반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내시장은 현재 연간 8000톤규모로 수요증가율이 자연증가를 넘는 10%를 보이고 있으며, 전량 수입되고 있다.

NPG 수요현황(1994) (단위 : M/T, %)

구 분	수 량	점유율
분 체 도 료	3,200	40.0
불포화폴리에스터	2,560	32.0
코팅수지 · PCM	2,240	28.0
합 계	8,000	100.0

자료) CRI

NPG 수요구성비(1994)



특히 옥소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는 LG화학과 한화종합화학(공장건설중)이 노말부틸알데하이드 유도체인 옥탄올과 부탄올쪽에 치중하는 바람에 NPG의 국내생산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수입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용도별 수요현황을 보면, 분체도료에 40%이상 사용되는 것을 비롯 불포화폴리에스터 30%, 코팅수지와 PCM에 30%정도 사용되고 있다.
NPG용도 가운데 분체도료수지용은 2~3년사이에 신공장이 계속 필요할 정도로 세계 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메이저들의 신증설현황을 보면, Eastman이 97년 완공을 목표로 말레이지아에 현 생산능력의 50% 정도를 늘려 총 3만톤으로 증설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미쯔비시도 2만5000톤 공장 증설계획을 95년말 완료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NPG는 가격면에서 수요증가와 원료가 상승에 따른 가수요가 표면화되면서 95년 8월현재 Kg당 2달러로 94년 2/4분기 1달러에 비해 무려 두배이상 폭등했다. 이같은 상황은 미쯔비시의 증설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맞춰 다소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과열양상을 빚었던 수요처의 가수요 열기는 3/4분기를 고비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분체도료시장의 성장세와 첨가제쪽의 수요증가가 증설규모를 웃돌 것으로 알려져 큰 변수가 없는 한 현재의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NPG시장은 OXO-CHEM사업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화학과 뒤늦게 뛰어든 한화종합화학, 영우화학이 신규진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외국 메이저들의 국내 침투가 워낙 강해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